

광주시,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 주력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 전용 복합수련시설 건립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적극 유치

광주시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건강권 보장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광주시는 올해 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사업을 ▲장애인 편의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등 두 축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의 심신수련과 문화 여가 활동 촉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 전용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한다. 복합수련시설은 1만8037㎡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마련

된다. 객실, 목욕장 대강당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소극장, 운동장, 캠프피어장, 힐링숲 등 부대시설을 비롯해 옛 인화학교 학생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인권기념관과 장애체험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승인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시의회 학계, 장애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배치 등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교류 및 소통, 연대공간 마련과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 지원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발주한 '장애인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적정 건립부지 마련과 후속절차 등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회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부모대표, 장애인단체, 의료 전문가

등으로 전문단을 운영해 의견 수렴 및 부지를 확정하고 올 상반기 중 복지부 공모(안)이 확정되면 위탁법인 선정 후 공모신청서를 제출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서면 영유아 재활의료 서비스, 돌봄 상담, 교육연계와 재활체육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화령기 장애아동의 학업지원을 위한 병원학급 및 순회 교실 등 운영,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단기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비장애인인 장애인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회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1월 중 보건복지부의 사업설명회를 거쳐 공모안이 확정되면 위탁기관을 자체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연계·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검진·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봉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회 건강검진기관은 올해 20곳을 지정한다. 지정기관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비비와 중증장애인 검진 건강 장애인 안전 편의관리비(연16980원)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김일용 복지건강국장은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인권신장과 사회참여활동 증진 등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장애인회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 광주시선관위 이명행 선임 사무처장 접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선임 인사차 교육감실을 방문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명행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변화된 선거관리를 주제로 회담을 나눴다. 이명행 선임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을 역임했으며, 홍보국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선거방송(eTV)' 개국을 주도해 투명선거와 선거정보의 개방시대를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의 55%

전년비 145% 늘어난 4만3340ha...친환경농업 1번지 굳혀

전남도는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4만3340ha로 전국 인증 면적의 55%가 넘어 명실공히 친환경농업 1번지로서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굳힌 것으로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전체 인증면적 가운데 유기농 상품 인증면적이 1만1469ha로 전년보다 145% 이상 늘어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도약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이루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것도 한몫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품목별로 차등해 ha당

과수 150만 원, 채소 130만 원, 버섯 12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과수·채소 품목은 ha당 10만 원씩 상향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5ha에 이르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버섯 이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 재배 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보성, 담양, 영암에 있는 친환경농업 교육관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 과수·채소 중심의 재배 기술 교육을 연중 추진한다.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대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동구, 2019년 기본 복지가이드라인 수립

광주 동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 '기본 복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복지부서 및 관내 복지현장에 배부·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 복지가이드라인은 ▲기본생활기준 ▲혹서기·혹한기 대비기준 ▲돌봄 대상기준 ▲교육 및 문화기준 등 4대 분야 79개 세부기준을 제시해 일상생활 주요영역에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 복지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법정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돌봄 이웃기준을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신년맞이 안전 캠페인

광주 서구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조광환)과 서구청이 2019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을 중심으로 서구청 및 광천동 직원과 더불어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현수막과 피켓 홍보와 함께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재난안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남구, 농촌 생활환경·생산기반시설 정비 나서

광주 남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7일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경지 정리 및 장마철 비 피해로 인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곳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북구, 광산구·담양·장성과 한전공대 공동 대응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장성군 등 광주·전남 북부권 4개 지자체 및 회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첨단3지구 한전공대 유치 등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

북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첨단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역 상생발전과 효율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지자체는 경제·산업, 교통, 환경, 기반시설,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 광주·전남 북부권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생의제로는 한전공대 첨단3지구 유치 및 첨단3지구 조기착공,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한국전통정원센터 유치 등 담양 문화관광도시 조성, 장성군의 미래먹거리인 황룡강·축령산·장성호·백양사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채택하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산구 우산동,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광주 광산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는 25개소 금융·공공기관이 집중돼있어 그간 각종 증명서류에 대한 시민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우산동은 이런 현실을 감안 주민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일과시간에만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 장구를 정비해 올해부터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은 시간과 날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국제·지방세 증명서 등 8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